

“아름다운 항구의 낭만과 정취 느낄수 있는 ‘목포 항구포차’”

삼학도 (구)해경부두에 ‘항구포차’ 조성, 점포 15개 선정 12일 개장 앞두고 친절·위생교육 및 영업장 조성 등 한창

오는 12일 목포 삼학도에 아름다운 항구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포차’가 개장한다.

목포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맛의 도시에 걸맞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삼학도 (구)해경부두에 조성하는 항구포차가 12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를 추억하고 항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포차거리가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에서 시작된 ‘목포 항구포차’는 장소·점포형태 선정 및 운영·관리 방안 등 모든 면에서 민·관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포차 이름 선정에서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각별히 신경 썼다. 목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명칭으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목포 항구포차’로 결정했다.

운영자 선정도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모두 마쳤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자 접수를 받아 1차 서류평가와

2차 음식품평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5명의 민간운영자를 선정했다.

현재 포차 운영자들은 친절교육, 위생교육, 메뉴 개발 등 포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한창인데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정결 서비스 제공으로 항구포차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물 포차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포차에서 판매할 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낙지, 민어, 홍어 삼합은 물론 미나리 삼겹살 구이, 닭발 해물삼합, 낙지라면 등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직장인, 남녀노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60여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영업장 준비도 마무리 되고 있다. 영업공간은 미관과 안전을 고려해 통일된 색·형태의 컨테이너 부스로 결정됐다. 시에서는 상하수도 및 전기·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포차 운영자는 컨테이너와 포차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한다.

컨테이너 제작은 남만항구 목포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규격과 디자인을



목포시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맛의 도시에 걸맞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삼학도 (구)해경부두에 조성하는 항구포차가 12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제공

시에서 제시하고 운영자는 이에 맞춰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제작회사를 선정하고 내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와 운영자들은 음식 못지않게 즐길거리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타 지자체 분석 결과 젊은 층을 공략한 공연처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 된 점에 착안해 ‘목포 항구 버스

킹’ 공연을 매주 금·토요일 2회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목포 항구포차는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19:00-익일 02:00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17:00-24:00까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항구포차 개장으로 맛의 도시 목포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났다. 항구포차에서 유달산과 항구를 배경으로 목포의 맛과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특히, 목포는 고하도, 유달산,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여행을 하기 딱 좋은 곳이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목포에서 힐링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무안, 드론활용 벼재배기술 보급

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난달 29일 일로읍 망월리에서 농업관련 관계자를 비롯한 농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활용 벼 직파재배 확대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는 일반적인 벼농사에 필요한 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육묘 과정이 없고 경운과 정지작업을 한 뒤에 볍씨를 눈에 바로 뿌려서 모를 기르는 것으로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방제 어려움과 기계 이양에 대한 관리가 복잡하고 수확 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재배 확대가 부진했지만 드론으로 직파재배를 할 경우에 기계이양 대비 생산비가 ha당 최고 120만원이 절감되고 작업시간도 1/6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군은 비료 주기, 병해충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 드론을 활용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생력화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30대를 지원했다.

/무안=고민재 기자 mjgo@

영암, 관내 위생업소 점검 실시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목욕장, 숙박업소 등 1천500여개 업소이다.

군은 현장 방문 시 살균소독용 물티슈를 배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 포스터를 부착해 주며 업소를 방문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방역·위생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도 병행한다.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함평군, 농촌일손돕기 발 벗고 나서

수확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농가 부서별 개별 선정

전남 함평군청 공무원들이 잠시 일터를 바꿔 영농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군 공무원 전체가 농촌일손돕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를 농촌일손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부서별로 개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예년보다 일찍 농촌일손돕기를 시작하고 규모와 기간 역시 늘렸다.

군은 또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일손돕기 알선창구는 개별 농가에서 각 읍·면사무소에 일손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농가와 지역 기관·단체 등을 서로 연계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은 일손이 특히 부족한 고령·정해농가 등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은 농가들이 마늘, 양파 등의 발작물을 수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며, “지역 기관·사회단체 등에서도 농가 고령 분담차원에서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신안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급

14개 읍·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방문 신청 및 상품권 지급

신안군은 관내 1만 2천여 가구에 38억 원 상당의 1004점 신안 상품권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지급했다.

전남형 생활비는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안군이 60%, 전남도가 40%의 예산을 부담해 시행했다.

군은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이 방문해 신청 접수를

40여 명이 접수 및 조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착안해 추진한 결과이다.

전남형 생활비지원원은 지난달 29일 (18:00)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신청 가구는 1만7천311세대로 이중 약 68%(1만1천703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당초 지원 대상 계획(8천64세대)의 약 145%에 달하는 가구수이다.

군은 현재 신청 건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및 재산조회 회신이 필요한 101세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주 이내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안=박성태 기자 tst5866@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영랑실버시인학교 개강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영랑실버시인학교’가 지난 1일 이상욱 강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본격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강진군에 주소를 둔 60~75세 어르신 20명을 정원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희망자가 폭주해 2개 반(40명)으로 늘려 재편성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오전반 10시, 오후반 1시 30분) 총 25회에 걸쳐 진행되는 ‘영랑 실버시인학교’

는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의 문학 기초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신달자 시인 등 여섯 차례의 인기작가 특강과 유현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정관웅 전남문인협회 부회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 창작 이론과 실기 등을 지도한다.

/강진=김대수 기자 abc6789@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

전국 최대 주산지

보성키위

보성물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물 검색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1YUjYkSbhc69PcPyQ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일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